



모로코

과도한 재정지출 부담을 국영기업 매각으로 보충

모로코 정부는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국영 통신사(Maroc Telecom)를 프랑스 기업에 매각한 데 이어 현재 국영 담배회사(Regie des Tabac)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동건은 민영화 추진 대상기업 중 큰 규모인 8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

모로코 정부가 국영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우선 유럽연합(EU)과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관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로코의 임금 수준은 인도에 비해 4배나 되는 반면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며, 기업의 금융조달 비용도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아시아 신흥 공업국은 물론 후발 개도국에 비해서도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 감소와 빈곤 퇴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가 민간기업 부문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 동기보다는 국가 정책에 따른 지시와 명령에 근거하여 영업하는 비효율적인 공기업 체제에서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고용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어렵게 만든다.

재정적자도 민영화 추진의 중요한 계기

당초 모로코 정부는 2002년도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4%로 잡았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3%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관세율을 13.6% 인하하여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줄이기 어려운 공공 부문의 급여는 재정지출의 36%나 되어, 모로코의 금년도 세수 부족은 전년보다 늘어난 GDP의 6.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입으로 재정적자의 절반 정도를 충당할 계획

획이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3.1%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모로코의 재정 건전화에 대해 공무원 감축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영기업을 매각한 대금을 공무원 급여 등 경상경비 지출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영기업 매각대금은 정확한 금액과 발생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매각되기도 전에 먼저 지출되는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영기업 매각대금이 다른 국영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구조조정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머지 않아 더 이상 매각할 국영기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총선이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에 대한 급여 삭감이나 해고 등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곤란한 입장인 정부는, 조세저항이 없고 목돈이 단기에 조달되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매각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나 증원을 중단하고 현 수준에서 지출을 동결시키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증자를 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정부는 모로코 북동부 나도르(Nador) 지역에 위치한 국영 설탕회사(Sucrafor)가 고용을 늘리도록 자본금을 지금보다 약 2배 늘려 생산설비 증설을 유도하였으며, 매각계획도 재무구조가 개선된 뒤 2002년 예산되는 2002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2002년도 국영기업 매각대금은 11억 달러로 예상

모로코는 국왕이 최고 통치권자인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관료들의 행정편의와 권한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각종 규제는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모로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로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하려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금융개혁, 자유 해고가 가능한 고용 신축성 보장 등 사업여건 개선을 모로코 정부에 강력히 주문해왔다. 외국계 기업을 민영화에 끌어들이고 고용을 유지하고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정부로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가 곤란하여, 모로코의 기업 여건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말에는 국영 통신사 지분 35%를 프랑스의 Vivendi Universal에 약 21억 달러에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어, 2000년 말 157억 디람에 이르렀던 재정수지 적자는 2001년 2월 동 매각대금이 입금되자 흑자로 반전되었다.

자국 민영화 사상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켜 한껏 고무된 모로코 정부는 2002년에 자동차 조립회사인 Somaca와 국영 통신사의 지분 16%를 추가로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발생으로 개도국의 외환위기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두 건의 민영화는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긴 모

로코 정부는 2002년의 민영화 목표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25억 디람(11억 달러)으로 축소하는 대신, 70억 디람으로 예상되는 유선 전화회사의 설립면허 판매 시기를 2003년에서 금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국영 담배회사의 민영화를 서두르게 되었다.

모로코 국내에 4개의 담배 제조공장 및 2만 개의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 담배회사는 자산규모 32억 디람, 예상 매각 가격 88억 디람(약 8억 달러)으로 국영 통신사 매각 이후 최대 규모의 민영화 대상기업이며, 금년 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프랑스의 Credit Lyonnais를 자문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입찰에는 동 회사의 모로코내 영업망과 제조공장을 바탕으로 여타 북아프리카 국가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British American Tobacco(BAT)를 비롯하여 Philip Morris, Altadis, Japan International Tobacco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매각가격은 금년 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에는 국영 설탕회사, 철도청(Office Nationale de Chemin de Fer), 우체국 및 3개 국영은행 등이 매각을 기다리고 있다.

민영화 기업의 성공 여부가 경제개혁 추진에 큰 영향을 줄 듯

민영화된 기업이 외국인투자자의 앞선 영업전략과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하면, 전통적인 중심 산업이던 인광석과 농업에서 탈피하여 관광, 석유개발, 수출용 제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모로코 정부의 산업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득권을 유지하려는 관료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으며,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대규모 감원이 노조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만약 민영화 기업의 효율이 높아져 고용이 늘어나면 노조와 관료들도 경제개혁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어, 9월 총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보다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U와의 협력협정 체결로 유럽 기업들과의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하는 모로코 기업에게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개혁만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韓明煥】